

SKC, 4/4분기 영업실적 개선 기대

대신증권, 매출 2496억원에 영업이익 150억원 ... 성장동력 확보 가시권

대신증권은 12월11일 SKC에 대해 4/4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4만 5000원을 유지했다.

안상희 애널리스트는 “SKC의 4/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2496억원, 150억원으로 예상한다”며 “영업 실적은 3/4분기 바닥을 치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고 분석했다.

또 “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물적 분할과 원재료인 나프타(Naphtha) 가격 급등 영향으로 본격적인 영업실적 개선은 2008년 2/4분기 이후에 가능할 것”이라며 “그러나 최근 시장대비 주가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SKC의 현재 주가수준은 과매도권으로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

그리고 “주 수익원인 프로필렌 옥사이드(Propylene Oxide)의 증설 효과와 인수·합병(M&A)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가시권에 진입하고 있다”며 “신규 M&A를 위한 재원은 외부차입보다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”라고 내다봤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2/11>